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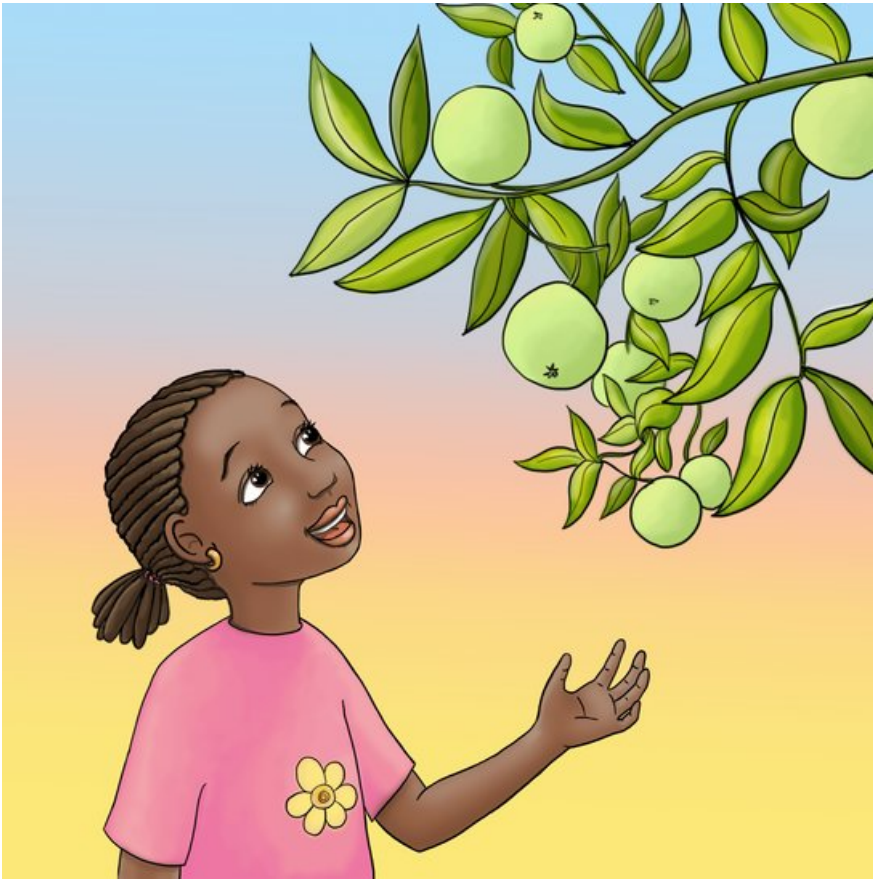


# 칼라이는 식물에게 말해요

-  Ursula Nafula
-  Jesse Pietersen
-  Jong Yong Park
-  Korean
-  Level 2



여긴 칼라이에요. 그녀는 일곱살이죠.  
그녀의 이름은 그녀의 말 루복수로 “좋은 아이”라는 뜻이에요.



칼라이는 일어나서 오렌지 나무에게  
말해요. “오렌지 나무야, 크게 자라서  
우리에게 많은 잘 익은 오렌지를 주  
렴.”



칼라이는 학교로 걸어가요. 가는 길에 풀에게 말해요. “풀아, 더 초록색으로 자라고 마르지 말렴.”



칼라이는 야생화를 지나쳐가요. “꽃들  
아, 계속해서 피어나서 너희를 내 머리  
에 꽃을 수 있게 해주렴.”





학교에서, 칼라이는 단지 중앙의 나무에게 말합니다. “나무야, 큰 가지를 뺏어서 우리가 네 그늘 아래서 읽을 수 있게 해주렴.”



칼라이는 학교를 둘러싼 생울타리에  
게 말해요. “강하게 자라서 나쁜 사람  
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렴.”



칼라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,  
오렌지 나무에게 들려요. “네 오렌지  
는 아직 익었니?” 칼라이가 물어요.





“오렌지가 아직 초록빛이구나,” 칼라이가 한숨을 쉬어요. “내일 보자, 오렌지 나무야.” 칼라이가 말해요. “어쩌면 그때는 네가 날 위해 잘 익은 오렌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!”



# Storybooks Canada

[storybookscanada.ca](http://storybookscanada.ca)

## 칼라이는 식물에게 말해요

Written by: Ursula Nafula

Illustrated by: Jesse Pietersen

Translated by: Jong Yong Park

This story originates from the African Storybook ([africanstorybook.org](http://africanstorybook.org)) and is brought to you by [Storybooks Canada](http://Storybooks Canada) in an effort to provide children's stories in Canada's many languages.



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 
[Attribution 4.0 International License](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/).